

한류 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장르적 전형

TV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중심으로

Narrative Strategies and Generic Conventions of Hallyu Dramas

: Focusing on the TV drama <The Star is in My Heart>

김민영*

국문초록 1990년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문화'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른바 '신세대'로 불리는 10~20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하며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국내외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0년대 후반 방영된 <별은 내 가슴에>는 동화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에 배우 '안재욱'의 인기가 더해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1세대 한류를 이끌었다. <별은 내 가슴에>는 '낭만적 사랑'과 '멜로드라마 서사'를 결합하여,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메인 플롯을 구성했다. 이는 전 세계에 통용가능한 플롯으로, 특정 사회·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신데렐라 이야기의 전형과 변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강민'이라는 캐릭터와 이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더해져 팬덤 문화형성의 시초가 마련되었다. 이때 형성된 팬덤 문화는 한국의 콘텐츠, 패션, 음악 등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장되며 단편적인 작품이 아닌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핵심어 <별은 내 가슴에>, 1세대 한류, 신데렐라 이야기, 스타 마케팅, 팬덤문화

- 차례**
1. 서론
 2. 낭만적 로맨스드라마 포맷의 전형화
 3. 멀티 엔터테이너 팬덤의 시작
 4. 결론

어권 최초로 에미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³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넷플릭스는 유료가입 고객만이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드라마로 선보인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 흥행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싸이의 <강남 스타일>(2012)이 유튜브 조회수 50억 회를 기록하고⁴ BTS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를 마주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며, 한국은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영향력

1. 서론

<오징어게임>¹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² 주연 배우와 감독이 비영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교양융합대학 강의전담교수

1 각본 황동혁, 연출 황동혁, 넷플릭스, 2021.09.17, 총 9부작.

2 김성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인기순위 14개국 1위」, 『MBC뉴스』, 2021.09.23.

3 윤현, 「'오징어게임' 에미상 역사 새로 썼다. 남우주연상·감독상 수상」, 『오마이뉴스』, 2022.09.13.

4 이진경, 「싸이 '강남스타일', 11년 5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억 회 기록」, 『세계일보』, 2023.12.30.

있는 국가' 항목에서 8위를 기록했다.⁵ 이는 한국의 문화 브랜드의 가치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류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상당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은 '한류(韓流)'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⁶ 'Korean Wave' 혹은 우리말 소리대로 'Hallyu'로 표기하는 한류는 한국에서 제작된 여러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면서 시작된 문화현상을 말한다. 초기에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지금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대중에게 인기를 끌며 한국의 대중문화에 공감하고 즐기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를 비롯해서 음악, 영화, 예능, 게임, 패션 등 문화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든 행위는 '한류'로 불리며, 국가 간 대중문화 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⁷

한류의 어원에 대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이어졌다. 먼저 1999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K-pop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음반을 배포할 때, 영어와 일본에 버전으로 'Korean Pop Music', 중국 한자로 '韓流-Song From Korea'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다.⁸ 하지만 이 주장은 "한류 어원의 기원이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한국 대중 가요의 성공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없"⁹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두 번째로 1997년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¹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에 가장 큰

5 정연수, 「한국, 2024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브랜드 파이낸스 보고서」, 『Korea IT Times』, 2024.03.04.

6 Naver <표준국어대사전>.

7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1쪽.

8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2011, 168~169쪽.

9 진달용, 『한류 신화에 관한 10가지 논쟁』, 한울엠플러스(주), 2022, 39쪽.

10 극본 김수현, 연출 박철, MBC, 1991.11.23~1992.05.31, 총 55부작.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¹¹ 이는 많은 학술 연구와 미디어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각으로, '한류'라는 타이틀이 생성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뭐길래>에 앞서 1993년 "작품성과 시의성, 시장성을 가지고 상품으로서 도전"한 <질투>¹²를 한류의 기원으로 보는 주장도 존재한다. <질투>가 중국과의 수교 덕분에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던 최초의 수출 상품이자 경제적이면서도 질적인 측면이 보장되는 콘텐츠 상품이므로, "한류의 기원"으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네 번째 의견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고가의 일본 프로그램 대신, 품질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드라마가 대만, 홍콩, 중국까지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생성됐다는 주장이다.¹⁴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류의 시작은 단편적인 현상 혹은 단독 콘텐츠 상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류는 단지 드라마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 장르가 복합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류는 "특정한 문화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행으로서의 한류 논의는 1997년보다는 좀 더 이른 1990년대 중반부터를 한류 초창기로 분류"¹⁵하는 편이 적절하다.

한류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로 확산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 생태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한류의 기원을 살펴보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19 이후 OTT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초국가적 아이콘으로써 문화적 흐름을

11 허진,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6(1), 한국방송학회, 2002, 499쪽.

12 극본 최연지·윤명혜, 연출 이승렬, MBC, 1992.06.01~1992.07.21, 총 16부작.

13 김윤정, 「한류의 초기 생성과정 트렌디드라마 <질투>의 상품적 가치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9, 113쪽.

14 김윤지, 『한류외전』, 어크로스, 2023, 72~75쪽.

15 진달용, 앞의 책, 49쪽.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경제적 혹은 산업적으로 기여한 측면만 유독 부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써 한류를 읽어내고 각 콘텐츠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는 작업은 한류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의 시선을 잡으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히 ‘문화의 시대’다. 지난 시대를 지배했던 모든 견고한 것들이 부드러운 ‘문화’ 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¹⁶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한류의 시작을 알린 1990년대는 ‘문화’의 시대로 명명할 수 있다. “1980년대적인 ‘정치와 함께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치에서 떠난 문화’로 “정치적 긴장의 이완과 변혁 주체인 민주의 연성화에 따른 대중(소비)사회와 대중문화의 부상”이 가능한 시대였다.¹⁷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신세대 가요의 서막이 열리고, <질투>와 같은 트렌디드라마가 방영되고 <여명의 눈동자>¹⁸와 같은 대작 드라마의 제작 가능성이 제시됐다. 즉,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접어들며 거대 담론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의 욕망이 문화적으로 표출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중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가 바로 1990년대였다.

이 시기의 한국은 노동운동 덕분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향상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되었다. 구소련의 붕괴로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이 불가능함이 증명됐으며, 이에 자본주의는 의심할 수 없는 체제로 굳건히 자리잡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확산됐

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한 재벌 회장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냈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질서에 대한 믿음 또한 견고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선진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능력을 갖추고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꿈꾸게 했다.¹⁹ 이상과 같이 희망과 낙관의 태도가 지속되는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비현실적이지만 극적인 계층 상승을 주요 플롯으로 하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대중의 기대와 욕망을 적극 반영하고 강한 공감과 대리만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국 콘텐츠 서사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이 글은 1세대 한류를 이끌었던 여러 작품 중에서 ‘신데렐라’ 이야기 관습을 따르며 소위 ‘안재욱 신드롬’을 일으킨 <별은 내 가슴에>²⁰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그간 1세대 한류에 대한 연구는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²¹, <대장금>²²에 집중되었다.²³ ‘신데렐라’ 이야기가 1990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연구 속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 <별은 내 가슴에>는 홍콩의 위성방송 스타TV 계열의 중국어 방송인 ‘평화타이(Phoenix TV)’를 통해 방영되며,²⁴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한류를 이끈 선구적인 작품으로 봐야 한다. 즉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고, 한국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보

16 홍성태, 「정보사회와 문화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1996년 가을호 (윤여일, 『모든 현대의 시작, 1990년대』, 돌베개, 2023, 79쪽에서 재인용).

17 위의 책, 80쪽.

18 극본 송지나, 연출 김종학, MBC, 1991.10.07~1992.02.06, 총 36부작.

19 이영미, 『신데렐라 없었다: 심순애에서 길라임까지, 대중예술 속 신데렐라 이야기 변천사』, 서해문집, 2022, 210~216쪽.

20 극본 김기호·이선미, 연출 이진석·이창한, MBC, 1997.03.10~1997.04.29, 총 16부작.

21 극본 윤은경·김은희, 연출 윤석호, KBS2, 2002.01.14~2002.03.19, 총 20부작.

22 극본 김영현, 연출 이병훈, MBC, 2003.09.15~2004.03.23, 총 54부작.

23 이상민, 「한류 드라마의 특성과 경쟁력: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59~84쪽.

24 주요유보, 「중국 영상 문화에 끼친 한류의 영향: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 2003, 98쪽.

여겼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별은 내 가슴에>가 1세대 한류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낭만적 로맨스드라마 포맷의 전형화

대중예술은 당대 사회구성원의 욕구·욕망을 익숙한 예술적 관습으로 재현하며 감정을 환기한다. 트렌디드라마 중에서도 <별은 내 가슴에>는 고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와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신세대의 사랑과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진출 및 원자화된 인간관계 등을 갈등의 축에 둔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멜로드라마와 차별점을 이루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트렌디드라마는 <질투>를 필두로 <사랑을 그대 품안에>²⁵ 등과 함께 기존 멜로드라마와는 차별화된 카메라 기법과 연출을 선보이며 1990년대 문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²⁶ 이 시기에 TV드라마로 구현된 ‘신데렐라’ 이야기는 트렌디드라마의 양식과 결합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하여 시청률이 보장되는 대중적인 화소가 되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을 그리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낭만적인 로맨스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TV 드라마 영역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낭만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발흥했으며, 계몽주의에서 강조했던 이성이나 합리성 대신에 개인의 창조성, 자유, 감성 등에 주목하는 예술 사조로 알려져

있다. “멜로드라마는 낭만주의 미학의 최초의 근사치로서 그리고 그것의 급진적인 양식”이라는 피터 브룩스의 주장처럼,²⁷ 낭만주의와 대중예술의 어우러짐은 낭만주의의 출발에서부터 당연한 결과였다.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문학이 “오늘날 몇몇 ‘매체들’에 의해 소위 ‘대중문학pub-literature’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²⁸ 낭만주의는 현대성의 선취이자 현재와의 동시대적 요인에 긴밀히 호응하며 현대적 의미에서 대중문학의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⁹

주로 “억압된 태도와 불안이 뒤엉켜 여성들이 그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일종의 미개발 상태로 묶어두는”³⁰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는 사회 체제에서 출세, 사랑, 명예, 부와 같은 욕망을 오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드러냈던 남성과 달리,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사회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자기 본연의 독창성 혹은 열의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만 현실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환상은 곧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³¹ 1990년대 부상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젖은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게 했다. 여성들을 ‘알파걸’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능동적·주체적 여성으로 변모하게 했고, 오랜 기간 사회적 제약을 받아온 여성에게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 결과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학력과 실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더 이상 시댁에 얽매어 속앓이하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

25 극본 이선미·김기호, 연출 이진석, MBC, 1994.06.06~1994.07.26. 총 16부작. 이 작품은 <별은 내 가슴에>와 극본과 연출이 동일하다. 따라서 <별은 내 가슴에>는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서부터 그리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26 1990년대 등장한 트렌디드라마는 “획기적인 코발트(cobalt), 앰버(amber) 컬러 필터 사용과 빠른 화면전개를 통한 감각적인 영상 및 독자적인 OST작업” 등으로 당대 문화 소비자인 신세대의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연구: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8~9쪽).

27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163쪽.

28 필립 리쿠-라바르트·장-뤽 낭시, 홍사현 역, 『문학적 절대: 독인 낭만주의 문학이론』, 그린비, 2015, 17쪽.

29 신주진, 「김은숙 드라마의 대중적 낭만주의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2(1), 한국근대문학학회, 2021, 171~172쪽.

30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역,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1987, 32쪽.

31 위의 책, 56쪽.

졌다.

이상의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는 ‘골드미스’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 제도가 여성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치관과 여성의 평등 추구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공한 삶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출중한 남성에게 안식처를 제공받길 원하는 욕망, 즉 자립성과 의존성 사이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양가적 심리는 낭만적 사랑을 통해 결혼까지 이르고 동시에 부과 권력을 얻게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형성했다.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문화적 가치로 폭넓게 인정받고 이상적인 결혼의 기준으로 존중받게 된 것은 19세기에 와서야 일어난 일이다. 사랑의 새로운 개념은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개개인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명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행복이 소중함을 인식하는 문화에서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서양에서 산업 혁명, 자본주의와 함께 탄생했다.³² (강조는 인용자)

너새니얼 브랜든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적 멜로드라마로서 <별은 내 가슴에>에서 주목할 지점은 ‘낭만적 사랑’, 다시 말해 ‘세속적인 낭만적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로맨스”라는 관념은 전체로서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준 세속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에 기여”³³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사랑’과 ‘돈’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소유는 곧 사회적 권력과 직결되며, 이 두 요소는 인간의 생

존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화두이기 때문이다.³⁴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여자가 자신과 상반되는 조건을 가진 남자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낭만적 사랑’과 ‘현실적 욕망’의 간극을 해소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1세대 한류를 촉발한 <별은 내 가슴에> 역시 멜로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전적 신데렐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여자 주인공 이연이(최진실 님)는 ‘신데렐라’의 원형에서 드러나는 패턴에 정확히 부합한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자신의 안녕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착한 성품을 지닌 채 씩씩하고 당차게 일상을 살아간다.³⁵ 이연이 또한 천애고아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풍족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낸다. 사실 이연이는 안 사장(이영후 님)의 딸이지만, 그의 외도로 인한 혼외 자식이었기 때문에 출신 배경과 부(父)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럼에도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불우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며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형상화된다.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양순애(전도연 님)의 옷을 직접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육원 동생들을 살뜰히 챙긴다. 아울러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는 정당하게 저항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당당히 소신을 드러내는 등 힘든 현실을 강단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철없고 이기적인 부잣집 딸인 안이화(조미령 님)와 극명히 대조된다. 안이화에게 강민(안재욱 님)은 오랜 기간 애정을 갈구해온 존재이므로, 그의 사랑을 받는 이연이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자

32 너새니얼 브랜든, 임정은 역, 『낭만적 사랑의 심리학』, 교양인, 2019, 55쪽.

33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80쪽.

34 이영미, 앞의 책, 20쪽.

35 박은하, 『21세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양상 연구: <시크릿 가든>과 <청담동 앨리스>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4, 20~21쪽.

신의 모(母) 송여사(박원숙 님)가 실력있는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재능이 부족해 디자인을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사회 진출이 불가능한 한계를 보인다. 이연이의 디자인을 훔쳐 JS 패션에 입사하고, 디자인 컨셉 회의에서는 송여사의 과거 디자인을 자기 것인양 제출하는 등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대처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다.

한편 강민은 ‘신데렐라’ 이야기 남자 주인공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남자다운 매력을 지닌 채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순정남으로 그려진다.³⁶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오지명 님)의 아들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상당한 집안의 자제이다. 아울러 가수라는 직업으로도 탄탄대로를 걷고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며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 강민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이연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세계이다.

두 사람의 현격한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그들의 사랑에 있어 조건이자 원동력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방해물이다. 멜로드라마에서 고난과 역경은 주인공의 희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내러티브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사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 둘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이들의 관계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다. 이연이는 출신 배경의 한계 때문에 명문가 태생인 강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녀의 출신 배경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불가능한 요인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중추적 요인이 된다.

강장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저런 애를 데리고 와? 이놈

36 조용상·김혜정,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5(1), 글로벌컬처의산업연구센터, 2016, 92쪽.

이 끝까지 애비를 엇먹이네, 정말.

강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강장군 뭐? 너 말 다했냐?

강민고모 너 왜 이러니? 아버지 성질 잘 안면서, 도대체.

(14회)

강장군 너 때문에 애비 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앞에선 이야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별소리를 다하고 있어.

강민 저 음악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연이와 결혼 허락해주세요.

강장군 안돼. 너 밖으로 잠시 바람 좀 쐬고 와. 공부를 몇 년 동안 더 해도 좋고, 뭐든지 다 이야기해. 하지만 개는 안돼.

(15회)

강민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연이와 연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주저 없이 밝히며 그녀와의 관계를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반면 이연이는 강민을 향한 깊은 애정에 변함이 없지만, 완강한 가족의 반대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강민에게 감정적인 거리를 두며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 계급적 편견과 사회적 기대에 뿌리를 둔 강민 가족의 반대는 이들이 극복해야 할 큰 장벽을 만들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위한 희생을 내포한다는 장르적 긴장감을 더한다.

송여사는 안이화와 함께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악역으로, 이들은 반복적으로 강민과 이연이의 관계를 훼방놓는다. 이연이의 성과를 가로채고 방해하고 술한 모함을 일삼는 송여사와 안이화의 방해 행위는 〈별은 내 가슴에〉 메인 서사에서 갈등의 원천을 제공한다. 송여사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이연이의 수양어머니이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연이에게 전가하며 가혹한 대우와 끊임없는 비난만을 일삼는 전형적인 사악한 계모의 역할을 구현한다. 남편인 안 사장이 이연이에게 선물한 시계를 강제

로 뺏거나, 안이화를 위해 이연이의 디자인을 훔치고, 강민의 새어머니에게 강민과 이연이의 관계를 폭로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 이연이의 행복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한다.

송여사 고아원 친구들 아직도 만나니? 나나 아저씨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중략) 너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 줄 아니? 우리가 너한테 해 준 거 생색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라는 옛말도 있잖니. (2회)

송여사 너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너 같은 여자가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우리 가문의 명예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니? (5회)

강장군 요즘 연이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송여사 개 아주 무서운 애예요. 지난번에 장례식날 온 거 보셨죠? 아니. 자기가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휴...

김여사 내가 보기엔 심성은 고운 애 같던데.

송여사 그래서 무섭단 거예요. 저는 한 집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강장군 없이 살던 애라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나갈 때 몇 푼 쥐서 내보내지 그랬어요.

송여사 여간내기 아니예요. 얼마 전에 민이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민이가 아주 폭 빠졌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몇 푼 쥐어준다고 떨어져 나가겠어요? (7회)

안이화는 이연이와 이복 자매이지만, 사회적 능력의 결핍과 강민을 향한 일방적인 순애보가 좌절될지 모른다. 이는 불안감과 두려움, 질투 때문에 비윤리적인 수단까지 사

용하면서 그녀를 위협에 빠뜨린다. 하지만 수치와 모욕, 냉소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송여사와 안이화의 방해는 오히려 이연이의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이연이는 송여사의 반복적인 폭력과 학대, 안이화의 계략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즉 디자이너로서 사회적 성공을 꿈꾸며 고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인다.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루는 과정뿐만 아니라 강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의 적대적인 행동은 이연이의 희생을 부각시킨다. 낭만적 사랑은 종종 고난과 희생으로 시험받으며, 이러한 시련을 극복한 끝에 도달한 궁극적인 결실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① 한국의 언론자유는 한국드라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였다. 인본주의는 한국드라마의 특징이 되었다. 가정, 사랑이 변하지 않는 주제인데 한국드라마는 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사소함을 잡아내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며 인간미를 느끼게 해준다.

② 한국드라마의 매력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유교문화의 상승이며, 감정은 풍부하고 디테일은 진실하다. 일반가정 중에서 나타나는 효도, 달콤한 사랑, 충성을 다하는 순정은 한국 드라마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다.³⁷ (강조는 인용자)

한국 드라마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별은 내 가슴에〉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플롯을 유지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가족(혹은 유사가족)과 사랑이라는 화소에 맞게 정형화된 인물 설정과 반복되는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해피엔딩의 결말로 귀결된다. 이때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은 이들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이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끝끝내 사랑의 결

37 김기덕·이동배·장제운, 「한류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주의: 현대 중국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12~13쪽.

실을 이룬다. 비록 빈번한 클리셰의 사용으로 진부한 구조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동화 같은 사랑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대리만족 효과를 얻으며 감정적 욕구를 해소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일본드라마는 상대적으로 구성이 탄탄하다는 평가 함께 일본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로 서사가 진행되고, 중국의 현대드라마는 소재가 단순하고 다양한 연출적 표현이 쉽지 않아 대중의 공감을 얻는 데 제약이 많았다.³⁸ 이에 반해 1세대 한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는 일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즉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 소비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별은 내 가슴에>의 성공적 플롯은 이후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비슷한 포맷을 따르게 하였고, 이는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소로 자리 잡았다. <별은 내 가슴에>의 중심 플롯이 특정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감정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의 감성을 자극하며 해외 시청자들을 공략했던 것이다. 즉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 받은 멜로드라마 형식은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3. 멀티 엔터테이너 팬덤의 시작

<별은 내 가슴에>는 MBC가 PC통신을 시청자 의견 수렴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방영 전에 대본을 선공개하면서 시청자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작품이다. 시청자들은 PC통신을 통해 작품의 전개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극이 전개됨에 따라 시청자

들은 원래 주인공이던 이준희(차인표 님)을 제치고 배우 안재욱이 연기한 강민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결과 제작진은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 결말을 수정하기까지 했다.³⁹ 원래 <별은 내 가슴에>는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작가와 연출가가 다시 합작한 작품으로, 제대한 차인표 배우 복귀작이자 최진실 배우의 출연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⁴⁰ 그러나 방영 이후 안재욱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해서 이른바 ‘안재욱 신드롬’이 일어났고, 시청자들의 요구로 인해 이준희는 옛 연인을 찾아 떠나고 강민과 이연이가 맺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안재욱이 연기한 ‘강민’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과는 다른 결로 그려진다. 강민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하고 집안 배경이 뛰어나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친절하고 따스한 면모를 보이는 전형적 특징을 지녔지만, 예의바르고 반듯한 실장님 이미지가 아닌 모성본능을 자극하며 반항적 기질이 다분한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 강 장군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수를 꿈꾼다.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가 사실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임을 알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 하지만 번번이 친부의 방해로 좌절당한다. 우연히 만난 이연이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튼 후에는 오로지 그녀만을 향한 순애보를 보여준다. “상처 받은 영혼의 소유자, 뜨거운 가슴을 지닌 록가수, 터프하지만 어딘지 마음 한 켠에 도시의 쓸쓸함이 배어 나오는”⁴¹ 강민은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되어서도 당당하게 이연이를 만나고 다른 여자들의 관심에는 확실한 선을 그으며, 성공과 사랑을 이루는 이상적인 남성상이

39 고선희, 「TV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반응분석: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예로」, 『연세 커뮤니케이션즈』 7,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7, 89쪽.

40 남지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은 한류의 시작이자 사회현상이었다」, 『한겨레』, 2021.04.10.

41 AnJaeWook-World, 「탤런트 안재욱 “진짜 가수 데뷔해요”」, 2004.06.28.

38 사무엘 소, 『김추자에서 BTS까지 여로에서 우영우까지』, 쌤소북스, 2022, 136쪽.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강민을 위해 만들어진 ‘테리우스 패션’ 스타일은 시청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건넸다. 등장인물 강민의 헤어스타일, 의상, 악세서리 등은 안재욱을 단연 스타대열에 올려놓았고, 이는 1990년대 후반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젊은 세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⁴² 이로 인해 안재욱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패션 아이콘이자 스타일리시한 스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스타일적 매력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리며 인기 상승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스타 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준 초기 사례로 평가되며, 안재욱과 최진실이 작품 속에서 착용한 의상, 액세서리, 관련 굿즈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팬덤 경제의 기초를 형성했다. 팬들은 드라마 속 스타들이 사용한 제품을 모방하며 소비했으며, 이는 스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팬덤 경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타는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많은 팬을 확보한 소수의 엘리트층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스타는 드라마, 영화, 방송 등 미디어에 등장하며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보이는 스타는 대중과 미디어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 산물이다. 스타의 이미지는 여러 미디어에 출연함으로써 형성된 스타일의 특징과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을 경유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구축된 스타의 이미지는 수용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 집합체로 확장 및 재구성된다.⁴³ 따라서 팬들은 스타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애착과 충성심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스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는 상품으로서 스타의 이미지를 향유하기 위해서 관련 굿즈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자”⁴⁴로 떠오른 스타는 한국 연예 산업에서 팬들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한 팬덤 경제의 중심에 있었다. 연예인의 성공이 바로 팬덤의 소비 활동과 직결되는 팬덤 경제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 스타와 팬을 재구성하였다. <별은 내 가슴에>를 기점으로 형성된 팬덤 경제는 이후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K-pop 굿즈, 포토카드, 앨범, 응원봉 등 다양한 상품의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결국 스타라는 지위가 좁은 범위의 연예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팬들이 상품을 소비하고 보증할 수 있는 독립된 ‘브랜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팬덤 경제는 오늘날까지 연예 산업에서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K-pop 아이돌 그룹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팬들이 앨범과 포토카드 등을 구매하여 아티스트의 음반 차트 성적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소비 활동은 K-pop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별은 내 가슴에>가 방영된 이후, 배우 안재욱의 인기를 중심으로 그의 팬클럽이 본격적으로 결성됐다. 이전에도 일부 스타에게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들이 있었지만, 안재욱의 팬덤은 <별은 내 가슴에> 성공 이후 전국에서 1천여 명이 모여 창단식을 진행하며 점차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⁴⁵ 팬들은 팬클럽을 통해 스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했으며, 공식 팬클럽으로 발전하면서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안재욱은 해외에서도 팬덤이 형성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등에서 그의 열성적인 팬클럽과 팬덤이 나타났다.⁴⁶ 이는 한국 연예인이 해외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팬덤 문화가 글로벌화

42 AnJaeWook-World, 「日만화주인공 패션 탤런트 안재욱 압구정·신촌일대서 선풍」, 2004.06.27.

43 장규수, 『한류의 스타시스템』, 스토리하우스, 2011, 16~17쪽.

44 위의 책, 20쪽.

45 이원홍, 「[이 스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동아일보』, 2009.09.26.

46 권로미, 「안재욱 아시아를 품다」, 『헤럴드경제』, 2004.07.31.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 팬들은 안재욱을 응원하거나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그가 출연한 드라마와 음악을 소비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자발적으로 팬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 한국 스타와 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형성되어 ‘팬미팅’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실제 안재욱은 드라마 방영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팬미팅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팬들과의 교류를 시도했다. 이처럼 그는 팬미팅을 통해 한국 연예인이 해외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고, 팬미팅에서 직접 팬들과 소통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한국 스타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음을 보여줬다.

TV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안재욱은 주연 배우로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로 발매된 그의 노래 ‘Forever’ 또한 큰 인기를 끌며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한 명의 스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팬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멀티 엔터테이너’의 개념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에는 배우와 가수로서 동시에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안재욱의 성공은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례로 여겨졌다.⁴⁷ 특히 그가 연기한 ‘강민’이라는 캐릭터는 극 중에서 가수였는데, 안재욱은 가수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수 ‘처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연기력과 음악적 재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대중은 가수와 배우 능력 모두를 겸비한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안재욱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는 〈별은 내 가슴에〉의 주요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시청자들이 강민 캐릭터와 더욱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극 중에서 강민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한다.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군입대를



(장면 1, 2회)



(장면 2, 6회)



(장면 3, 7회)



(장면 2, 13회)



(장면 5, 16회)



(장면 6, 16회)

결심한 그의 복잡한 감정을 코발트 컬러 필터와 클로즈업으로 연출한 장면(장면 1), 제대 후 작업실에서 신곡을 녹음하는 장면의 반복적인 노출(장면 2),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씬 전부를 엠버 컬러 필터로 연출한 부분(장면 3) 등은 모두 ‘강민’이 가수라는 직업을 강조하는 시각적·감각적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1990년대는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뮤직비디오 산업의 전성기였는데, 〈별은 내 가슴에〉 제작진은 가수 강민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비중있게 다루며 뮤직비디오의 연출 기법을 그의 서사와 결합시켜 극 중에서 재현한다. 아울러 프로포즈하는 씬에서는 강민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롱쇼트와 클로즈업을 교차하여 1990년대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카메라 워크를 보여준다(장면 4). 특히 마지막 회의 콘서트 씬(장면 5, 6)에서는 드론 촬영이 불가능했던 시기임에도 헬리캠까지 동원해서 실제 콘서트장을 방불케할 정도의 열기와 생동감을 극대화하는 연출을 보였다.⁴⁸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안재욱의 이미지는 이후 그의

47 김효정, 「‘아카이브’ 한류의 시초 안재욱, ‘별은 내 가슴에’ 인기로 중국 진출... 첫 콘서트에 ‘중국어 떼창’」, 『SBS연예뉴스』, 2021.03.07.

48 남지은, 앞의 글.

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팬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가 발매한 음악 앨범과 콘서트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했다. 이는 이후 가수와 배우의 경계를 넘어서는 팬덤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오늘날 아이돌이 음악, 연기,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는 한류 스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배우이자 가수로서 안재욱은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해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잡았다.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안재욱의 성공은 한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K-pop을 비롯한 이후 한류 스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그의 성공 사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HOT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은 물론이고 최근 4세대 K-pop 아이돌이 국내외에서 멀티 엔터테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안재욱의 이미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프라를 구축 및 개선하며, 아이돌 팬덤 문화의 확대를 가속화했다. 이 덕분에 배우로서 연기에만 전념하길 기대했던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광고나 음악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의 서막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한류 스타 시스템의 분기점을 이루었다. 아울러 이후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한류 콘텐츠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기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별은 내 가슴에>는 1990년대 후반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과 더불어 1세대 한류를 이끌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과는 달리 한류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패션과 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고, 로맨틱 멜로드라마 포맷을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덤과 팬덤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며 단순한 작품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 현상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별은 내 가슴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은 내 가슴에>는 한류 열풍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적인 작품이다. 대중 패션, 아이돌 문화, 팬클럽 문화, 글로벌 팬덤, 스타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 현상을 이끌어내고, 이후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즉 <별은 내 가슴에>는 1990년대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강력한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끼친 TV드라마로,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별은 내 가슴에>는 1990년대 사회·문화적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데렐라' 이야기를 멜로드라마 서사와 접목해 낭만적 사랑의 포맷을 형성했다. 정형화된 인물 설정과 반복되는 갈등 구조가 감각적인 연출과 결합하여 신세대와 같은 문화 소비자의 시선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팬덤 문화의 활성화와 한류 열풍의 기초를 다지며, 한국 연예인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민'을 연기한 안재욱은 가수와 배우를 아우르는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새로운 스타상을 제시하며 한류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인기는 연기와 음악적 재능의 결합, 드라마와 OST의 감정적 여운, 그리고 팬들과의 유대감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후 한국 콘텐츠는 K-POP과 K-드라마의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기에 <별은 내 가슴에>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오늘날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별은 내 가슴에〉, 극본 김기호·이선미, 연출 이진석·이창한, MBC, 1997.03.10~1997.04.29. 총 16부작.

2. 단행본 및 논문

- 고선희, 「TV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반응분석: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예로」, 『연세 커뮤니케이션즈』 7,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1997.
- 김기덕·이동배·장제윤, 「한류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주의: 현대 중국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 건국대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윤정, 「한류의 초기 생성과정 트렌디드라마〈질투〉의 상품적 가치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윤지, 『한류외전』, 어크로스, 2023.
-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연구: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너새니얼 브랜드, 임정은 역, 『낭만적 사랑의 심리학』, 교양인, 2019.
- 박은하, 「21세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양상 연구: 〈시크릿 가든〉과 〈청담동 앨리스〉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사무엘스, 『김추자에서 BTS까지 여로에서 우영우까지』, 샘소북스, 2022.
- 신주진, 「김은숙 드라마의 대중적 낭만주의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2(1), 한국근대문학회, 2021.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 윤여일, 『모든 현대의 시작, 1990년대』, 돌베개, 2023.
- 이상민, 「한류 드라마의 특성과 경쟁력」,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 이영미, 『신데렐라는 없었다: 심순애에서 길라임까지, 대중예술 속 신데렐라 이야기 변천사』, 서해문집, 2022.
-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2011.
- _____, 『한류의 스타시스템』, 스토리하우스, 2011.
- 조용상·김혜정,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글로벌창의문화연구』 5(1),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 2016.
- 주요유보, 「중국 영상 문화에 끼친 한류의 영향: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2003.
- 진달용, 『한류 신화에 관한 10가지 논쟁』, 한울엠플러스(주), 2022.
-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 필립 라쿠-라바르트·장-뤽 낭시, 홍사현 역, 『문학적 절대: 독인 낭만주의 문학이론』, 그린비, 2015.
- 허진,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6(1), 한국방송학회, 2002.

3. 기타 자료

- AnJaeWook-World, 「탈런트 안재욱 "진짜 가수 데뷔해요"」, 2004.06.28.
- _____, 「日만화주인공 패션 탈런트 안재욱 압구정·신촌일대서 선풍」, 2004.06.27.
- 김성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인기순위 14개국 1위, 『MBC뉴스』, 2021.09.23.
- 김효정, 「'아카이브' 한류의 시초 안재욱, '별은 내 가슴에' 인기로 중국 진출... 첫 콘서트에 '중국어 떼창」, 『SBS연예뉴스』, 2021.03.07.
- 윤현, 「'오징어게임' 에미상 역사 새로 썼다. 남우주연상·감독상 수상」, 『오마이뉴스』, 2022.09.13.

- 이원홍, 「[이스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동아일보』, 2009.09.26.
- 이진경, 「싸이 '강남스타일', 11년 5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억회 기록」, 『세계일보』, 2023.12.30.
- 정영수, 「한국, 2024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브랜드 파이낸스 보고서」, 『Korea IT Times』, 2024.03.04.

Abstract**Narrative Strategies and Generic Conventions of Hallyu Dramas**

Focusing on the TV drama <The Star is in My Heart>

Kim, Min-Young | Hannam University

The 1990s was a time whe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changed to become more culture-centered, and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began to expan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emerged as consumers. In the late 1990s, <The Star is in My Heart> led the first generation of Hallyu, gaining popularity i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due to its fairytale-like “Cinderella” story archetype and the popularity of actor Ahn Jae-wook. <The Star is in My Heart> combines romantic love with a melodramatic narrative, depicting the main storyline of overcoming real-life obstacles and fulfilling love, even in the face of great hardship. It is a universal narrative that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society or culture, but emphasizes love, the most fundamental human emotion, and has resonated with the public despite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dd to this the star marketing through the character of Kang Min, who can be seen as both the archetype and variation of the Cinderella story, and it formed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fandom culture. The fandom culture of actor Ahn Jae-wook has become an important technique for spreading interest in Korean content, fashion, music, and more, making it more than just a phenomenon that can be seen in isolated works, but a part of Korean culture as a whole.

Keywords <Star is in My Heart>, the first Korean Wave, Cinderella story, star marketing, Fandom culture
